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들에**

지난 30년 동안 선교동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에 힘입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동역자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전 1996년 4월 13일에 선교사 ‘선’ 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3년간 훈련을 받았던 동지였던 살롬선교교회를 떠나 오직 우리 주님의 손만 굳게 붙잡고 선교지로 왔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직장을 그만둔지 일주일만에 비행기를 타고 자녀들과 함께 고국을 떠나 선교지로 왔는데 벌써 강산이 세 번 변한 30년 세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선교지로 오기전**

우리 주님께서 선교지로 가야됨을 6~7가지로 싸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접결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최종 확인을 한 후 선교지로 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에 가장 기본적인 준비 즉 선교훈련 및 선교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한 탓으로 맨 땅에 헤딩을 아득히 목격이자 선교사역을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의 선교사역을 되돌아볼 때 우리 주님의 큰 은혜였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이 창대하리라” (욥 8:7)**

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떠나기전** 주님께서 우리 안민족이 십자가를 통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948년 쌍둥이 정권인 남북한을 예서쪽과 아곰쪽에 비유하시면서 “아곰쪽은 불이 되고 요셉 쪽은 불꽃이 되어 조개가 된 예서쪽을 태우게 됨” (욥 1:18)으로 통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선교출발 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선교지가 어떤 관계인가를 주님께 묻고 물었을 때

**‘연애주’ 는 북한 정권의 모태이고 그 씨가 ‘빨찌산’**

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선교지 빨찌산스크는**

러시아 혁명기간중 적백내전 때 빨찌산의 태동지인 동시에 빨찌산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빨찌산의 첫 승전지로 그것을 기념해 당초 지명인 수안에서 1970년 이후 개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민족이 십자가 통일되기 위한 선행조건이 북한정권의 개방 및 자유화를 통해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정권의 견고한 진을 강력한 찬양·경배로 파쇄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중을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0년전에 부족한 중을 이 곳 선교지에 불러주시고 지난 세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 일관 선교지를 고수하고 고수했을 때 주님께서 안민족통일을 위한 작은 조각 구름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난 세월동안 북한정권이**

견고한 ‘철의 장막’ 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조개’ 즉 ‘물로 지붕을 한 집’ 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큰 이데오르기 전쟁을 치루고 있지만 조만간 북한정권이 개방 및 자유화, 더 나아가서 십자가 다시 세워질 때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시작 첫 해와 둘째 해에** 사탄의 강한 공격이 있었고 1999년에는 종교재판으로 추방당할 뻔했는데 우리 주님의 강한 손길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도시를 거쳐간 선교사들이 종교재판 및 추방을 당하거나 자녀 사망 등의 큰 아픔을 겪었는데 저의는 종교재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잡아주심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외 몇 차례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누전으로 수양관 안동 전소와 같은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지금은 저의 가정만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지 출발 때** 7~8천만원의 빚을 안고 선교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다 갚아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당초 저의 교회를 세워주었던 엘에이 동양선교교회와 다시 연결시켜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고 임동선목사님의 5백명 라두가극장 집회 후 그 건물을 구입을 위한 선교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심 건물 구입 및 수리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의 큰 역사에 힘입어 외부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자비량 선교의 발판을 마련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초 구입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던 라두가극장을 대출금으로 차우에 구입하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조달된 자체자금으로 5년간의 수리를 거쳐 지금은 3백석의 교회 예배당과 영화관으로 사용하는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부르심만**을 굳게 믿고 선교지로 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저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더해주신다는 언약의 축복을 직접 체험한 지난 30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은 자기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안의 축복은 자기자신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케 되는 지난 세월이었습니.

**오늘날까지의 저의 선교지는**

지난 30년간 선교동역자들이 저의 선교지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에 힘입었음을 고백하며 다시한번 깊은 감사,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에 십자가 다시 세워지고 안민족이 십자가로 통일이 되는 그 날 때까지 선교동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을 부탁드립니다.

|                            |                                                                                                                                                                                                                                 |
|----------------------------|---------------------------------------------------------------------------------------------------------------------------------------------------------------------------------------------------------------------------------|
| 기<br>도<br>제<br>목           | 1. 강안 찬양 · 경배로 선교지의 하늘문이 크게 열리도록<br>2. QT 동안 아침기도 · 셀교외 모임이 크게 활성화 되도록<br>3. 임들게 준비된 라두가 · 수양관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br>4. 영와등 문화사역이 복음전파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게<br>5. 한글 · 문화 등을 위한 전문사역자들이 지원되도록<br>6. 사명감당위한 선교사 가정의 영혼육 강건함 위해 |
| 세<br>부<br>선<br>교<br>사<br>역 | 1. 그루지아 세미나 참석 및 결혼 40주년 기념 여행<br>2. 선교 30주년 축하객들의 방문<br>3. 매년 찾아오는 동장군과 애빙기 각설이<br>4. 여름방학 한글학교 특강 실시<br>5. 다시 한 세대를 양하여                                                                                                       |

## << 세부 선교사역 >>

### 1. 영성세미나 참석 및 결혼 40주년 그루지아 기념여행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 인근에 위치한 로커스교회 및 신약원이 개최한 세미나가 지난 1월에 그루지아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있었습니다. 왕복 항공료 및 숙식비 전액을 지원해준 탕으로 저의 부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 강사인 김리아목사님을 비롯해서 스템진들과 참석인원을 모두 합쳐서 거의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간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깨어나기’를 필두로 로마서 7장의 철저한 자기인식으로 인한 탄식과 더불어 8장의 생명의 생령의 법을 통한 거듭남과 성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에니어그램, 교류분석 및 의식지수의 검사를 통해 자기자신의 연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자신의 강점을 더욱 살리고 약점을 개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찾아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자신의 사명에 대해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교 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이 결혼 40주년이라 세미나 참석 후 며칠을 더 체류하면서 그루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쉬와 카프카스 산맥에 위치한 카즈백마을 등 몇몇 아름다운 여행지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전철과 택시 등을 번갈아 타면서 여행했는데 자녀들이 도와준 탕으로 세미나를 겸한 기념 여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 2. 선교 30주년 축하객들의 방문

저의 수양관이 위치한 빨찌산의 원조이자 첫 전투승리지역인 유메니프키 계곡은 매년 봄이 되면 들밭에 붉은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는 군락지로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교 30주년이라서 그런지 진달래가 만개했던 봄에 전례가 없었던 블라디보스톡 한국영사관 직원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하일로브카 농업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이다윗선교사를 비롯한 10여명의 선교사들이 방문해서 진달래 군락지를 감상했습니다. 붉게 핀 진달래 계곡의 빨찌산의 역사와 지난 선교사역 30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학생 때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비롯해서 40년전 결혼식을 했었는데 지금의 하늘비전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오영택 원담목사님과 장중만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성도님들 15명이 블라디보스톡을 지난 5월초에 방문에 선교비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선교사역 30주년이라서인지 우리 주님께서 몇몇 축하객들을 보내주시므로 큰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 3. 매년 찾아오는 동장군과 해빙기 각설이

러시아는 매년 새해가 되면 연말부터 연초 10일경까지 신정 연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화기기중 00의 고장으로 작년 8월부터 금년 신정 연휴 때까지도 영화상영이 제대로 안된 탓으로 건물의 난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매년 찾아오는 옥한의 동장군 방문이 있었는데 그런 요인등으로 인해 라두가건물 1층의 안쪽편 난방라지에타가 얼어서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난방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라디에터 하나 하나를 전열기로 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드라도 라지에터 내부에 제대로 열음이 녹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보일러를 가동해서 온수를 보내면서 한 쪽에서는 수도물을 공급하고 마지막에 있는 라디에터에서 물을 빼내는 시스템으로 해서 난방문제가 겨우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이 긴 탓으로 겨울에는 동장군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를 애아 비로소 아름다운 봄의 양언이 찾아오게 됩니다.

라두가건물은 매년 옥한 동장군의 방문으로 수도와 난방시설이 문제가 되지만 수양관 건물은 일부 난방만 하고 나머지는 난방을 전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매년 4~5월경이 되면 해빙기 각설이가 찾아오면 수도관 및 변기 등이 얼어 터지는 문제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장군과 해빙기 각설이가 매년 쉬지도 않고 찾아옴으로 인해 건물 유지 보수에 따른 크고 작은 수리가 선교사역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4. 여름방학 맞이 한국어 특강 실시

학교에서 방학을 실시한 지난 6월부터 매주 목금토 3일간 한국어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태권도의 날, 둘째날은 K-POP의 날, 셋째날은 한국민족의 날로 정한 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줌으로 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강 3일간 한글의 짜모음을 연상법을 사용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일간의 학습으로 기본적인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사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한글수업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전문사역자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5. 다시 한 세대를 양아여

#### 가. 중 사역 도전

##### (1) 교외사역

작년부터 거의 매일 아침마다 QT를 할 수 있도록 큐티내용을 한국어로 워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자녀들과 영계자매들에게 큐티 단톡방으로 보내고 있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는 번역앱을 통해 러시아어로 번역한 우 왓샵을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기도모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줌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아침기도모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 교인의 QT 생활화를 알리고 합니다.

##### (2) 한글학교 사역

러시아는 6월부터 3개월간 여름방학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친척방문을 위해 타지역으로 여행하는 학생

들이 많이 있습니다. 9학년 이상이 되면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글 공부를 위해 수업참석이 힘들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줌을 통한 한글공부를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글학교는 저희 지역에서 50킬로 떨어진 나오프카에서도 한글학교를 시작했으나 최근 차량연료비의 대폭 상승과 거리 등을 감안해 줌을 통한 한국어 학습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도 러시아와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탓으로 서로간에 만남의 축복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줌을 통한 소통과 교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3) 양우 줌 사역

그동안 줌을 통해 회의나 세미나에 참여는 해보았지만 줌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지 못한 탓으로 기존의 유경험자를 찾아 조만간 줌을 통한 선교사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아침기도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한글학교도 빨찌산스크 및 나오프카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한글특강을 개최한 후 줌을 통한 한글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서 한글학교 사역이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러시아어 설교 도전

선교사들로 파송되었을 때에는 현지에서 2~3년정도 선교지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한 후 선교사역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 그런 적응기간을 거칠 시간 및 물질이 없이 바로 선교사역에 투입이 되었고 고려인들의 도움으로 통역을 두게 된 탓으로 러시아어 학습에 대한 큰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년간 통역으로 일하고 있었던 최 빅토리아 전도사가 4~5월중 2주간 두 차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아바로브스크를 방문한 탓으로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근 구글 번역기와 AI를 지원하는 앱 등의 도움으로 과감하게 아침기도 QT 인도를 직접 러시아어로 설교하는 것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일상적인 대화는 잘 하고 있지만 주일날 설교의 경우 어려운 낱말이 있는 경우 통역이 매끄럽지 못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성도들의 호소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침기도 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도 지난 6월부터 러시아어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의 경우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시의 도움으로 강세와 심표를 가미한 러시아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어를 읽는 것이 서툴지만 러시아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양우 6개월 후가 되면 지금보다 러시아어 설교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과의 교제도 크게 확대되는 등으로 선교사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